

HONG KONG LINER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



2022년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서울은 홍콩의 독특한 문화와 생동감을 담은 40여 점의 미니어처 작품을 선보였으며, 약 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 '전통', '도시 풍경', '해상 경관'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100명이 넘는 홍콩 미니어처 작가, 건축가 및 애니메이터로 구성된 팀이 제작한 미니어처 작품들을 홍콩의 독특한 문화, 소중한 전통, 도시경관 및 일상생활을 시대별로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홍콩의 상징 <빅토리아 하버> 미니어처 작품(실제비율 1:750)은 관람객의 얼굴 사진을 홍콩의 도시 배경에 등장하게끔 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너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었다.

원섬 아우(Winsome Au)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제 도시로서의 홍콩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홍콩이 창의성과 개성이 풍부한 도시이며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임을 느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홍콩특별행정구(HKSAR)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한국에서 개최된 여러 행사 중 일환으로 홍콩의 독특한 문화를 한국 대중에게 소개하고 여행지로서의 홍콩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빅토리아 하버 미니어처 작품 앞에서,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좌측 두 번째), 김윤호 홍콩관광청 한국지사장(좌측 첫 번째), 니콜라 마세 캐세이퍼시픽 항공 한국지사장(우측 첫 번째), 카르멘 문 조이폴 미니어처 협회 회장(우측 두 번째)이 함께 촬영한 기념 사진



주말에 개최된 미니어처 작품 제작 시연회

행정수반 시정연설 발표

존 리 행정수반은 10월 19일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도시 발전을 위한 6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및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행정수반의 이니셔티브에는 전략적 기업 유치실(Office for Attracting Strategic Enterprises)과 우수 인재취업비자(Top Talent Pass Scheme)를 설립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 투자를 위해 300억 홍콩 달러(미화 38억 달러)의 공동 투자 기금(Co-Investment Fund)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행정수반은 홍콩의 혁신 및 기술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시의 I&T 생태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홍콩 및 해외 I&T 인재의 풀을 확대하고, 홍콩을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키며, 국가 전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개발(R&D) 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엔 신규 100억 홍콩 달러(미화 12억 8천만 달러) 계획이 출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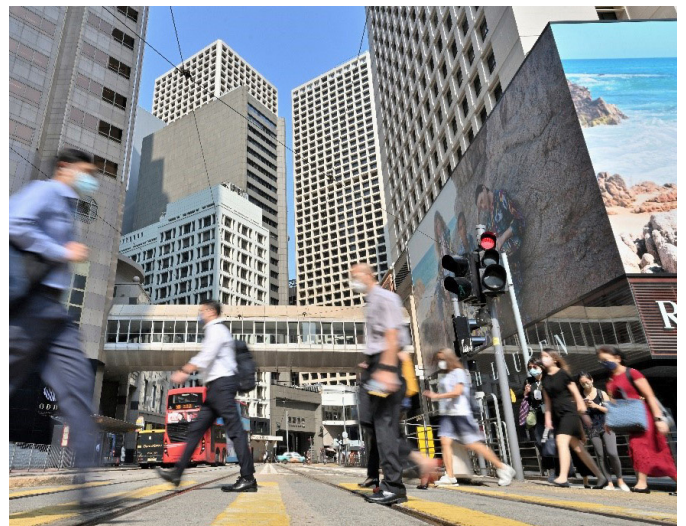


2022년 시정연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리 행정수반

홍콩, 세계 경제자유도 1위 자리 유지

프레이저 연구소는 지난 9월 2022년 세계 경제자유도 보고서에서 홍콩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재선정하였다. 이로써 홍콩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래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5개 평가 영역 중 홍콩은 '국제 무역자유도' 및 '시장 규제'부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홍콩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효율성과 지원을 강화하여 홍콩 경제가 유연성과 회복력을 보이고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홍콩이 세계 경제자유도 1위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홍콩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및 덴마크가 홍콩의 뒤를 이었다.



홍콩, 세계금융센터지수 4위 차지

홍콩은 영국의 Z/Yen과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2022년 9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119개 금융 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뉴욕이 1위를 차지하였고 런던, 싱가포르, 홍콩, 샌프란시스코가 그 뒤를 이었다.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 센터인 홍콩은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금융산업 발전 부문에서 이전 보고서와 비교하여 순위가 네 계단이나 상승하였다. 이와 동시에, 금

융 산업 종사자들이 본인이 속한 도시의 전망에 대해 평가하는 부문에서 여타 주요 금융센터의 금융 산업 종사자들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홍콩의 금융 산업 종사자들이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홍콩의 자본 시장을 통합하고 국제금융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 개최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홍콩 금융관리국이 주최한 3일간의 행사에서는 26명의 저명한 금융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경제, 금융, 기술 및 지정학적 현안 등을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는 방안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이번 서밋에는 약 120개 글로벌 금융사에서 200명이 넘는 대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4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에서 그룹회장 혹은 최고경영자(CEO)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존 리 행정수반은 기조연설에서 홍콩은 글로벌 이점과 중국의 이점이 하나의 도시에서 융합이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도시임을 강조하였다. 행정수반은 또한 “홍콩은 이러한 융합에 바탕을 둔 독특한 입지를 기반으로 중국 본토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 본토는 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경제권과 함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서 풍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홍콩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막대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연설 녹화 동영상 등 행사 하이라이트는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bit.ly/3ttVzBF>



존 리 행정수반은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11월 3일 진행된 '글로벌 투자자와의 대화'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좌측부터) 웨이저엔 산 퍼시픽알라이언스(PAG) 설립자 겸 대표, 윌리엄 곤웨이 칼라일 그룹 공동 창업임시 CEO 겸 공동 회장, 루크 엘리스 맨그룹 CEO, 벤 웨이 맥쿼리 자산운용 그룹 대표, 짐 젤터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 공동 사장은 불확실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홍콩 도착 입경자 강제 격리조치 해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2022년 9월 26일부터 해외(대한민국 포함)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입경자에 대한 강제 격리 요건이 해제되었다. 또한, 홍콩 정부는 12월 14일부터 해외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입경자에 대한 3일간의 황색(Amber) 코드 규정도 해제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입경자는 도시 전역의 장소를 즉시 방문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 바 등과 같은 특정 시설 입장 요건은 간소화되었다(특정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 조정된 조치는 건강 위험과 경제 활동 활성화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입경자는 여전히 홍콩 도착 당일과 도착 후 2일차에 공항에서

‘검사 후 이동(Test and Go)’ 방식으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5일차까지 매일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홍콩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기 탑승 24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를 홍콩위생서의 온라인 건강검역정보신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12세 이상 홍콩 비거주자는 홍콩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백신 접종 면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갈라 디너 서울에서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9월 22일 서울에서 만찬 행사를 주최하였다. 원석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한국 정부, 정재계, 학계, 언론 및 지역사회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250여명의 내빈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지난 25년간 홍콩이 달성한 실

질적인 진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우 대표는 “홍콩이 중국 본토에 반환된 이후, 홍콩특별행정구는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일국양제’의



갈라 디너에 참석한 원석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좌측 두 번째),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우측 두 번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좌측 첫 번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측 첫 번째)

원칙을 이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다. ‘일국양제’의 성공적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우 대표는 그간 홍콩과 한국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홍콩의 5대 교역 상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며, 녹색경제와 지속가능성, 혁신 기술, 무역과 투자, 금융 서비스,

예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홍콩과 한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연단 R&T (Rhythm & Tempo)가 홍콩에서 선보인 라이브 탭댄스 공연이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갈라 디너 현장에 생중계 되었다.



Hong Kong Federation of Youth Groups가 홍콩에서 진행한 라이브 아카펠라 공연이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갈라 디너 현장에 생중계 되었다.

홍콩 영화제 서울에서 개최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된 홍콩 영화제를 후원하였다. 총 9편의 홍콩 영화를 상영한 이 영화제는 창의 홍콩(Create Hong Kong)과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원석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개막식에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주옥 같은 홍콩 영화를 상영하여 홍콩 영화 산업의 활기와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저명한 베테랑 영화감독 뿐만 아니라 신진 감독들이 제작한 9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개막작으로 선보인 4K 디지털로 복원된 관금봉의 〈연지구(月+因脂拘)〉를 필두로 〈아버지의 마라탕(花椒之味)〉, 〈12일(12日)〉, 〈허안화: 행복한 영화(好好拍電影)〉, 〈프리티 하트(心裏美)〉, 〈내 인생의 햇살(一路瞳行)〉, 〈남인사십(男人四十)〉(복원작), 〈반변인(半邊人)〉, 〈가을 날의 동화(秋天的童話)〉(복원작) 등이 상영되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원석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우측 두 번째),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좌측 두 번째), 앤드류 판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차석대표(우측 첫 번째), 홍콩 여배우 제니퍼 유(좌측 첫 번째)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의 서울 방문

원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9월 서울을 방문하여 정재계 및 문화 부문의 다양한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아우 대표는 홍콩의 최근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홍콩과 한국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우 대표는 특히 기본법에 따라 홍콩시민과 외국인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더불어, 홍콩특별행정구의 고유한 장점을 강조하였다.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홍콩의 사회질서와 안정이 회복되고 시

민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법치주의, 견고한 금융시스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정보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단순한 세제 등 홍콩의 안정은 유지되었다. 홍콩은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시장의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본토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아우 대표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각계인사들에게 홍콩의 활기와 역동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홍콩을 방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좌측)과의 면담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좌측)과의 면담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우측)과의 면담



김현철 한국무역협회(KITA) 글로벌협력본부장(좌측)과의 면담



김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우측)과의 면담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FKI) 국제본부장(우측)과의 면담

한국 디지털 디자인 및 아트테크 기업, 홍콩에 첫 해외 전시관 오픈



디스트릭트(d'strict)가 만든 한국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인 '아르떼 M'이 홍콩 퀴리베이(Quarry Bay)의 상징적인 오피스 빌딩(K11 Atelier)에 처음으로 해외 전시관을 오픈하여 홍콩 관람객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자연 속으로 오감을 깨우는 가상 여행을 선보인다.

'아르떼 M'은 디스트릭트의 '아르떼뮤지엄'이 홍콩국제공항 스카이스티(SKYCITY)에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 정식 오픈할 때까지 15개월 정도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는 이번 홍콩 전시관 오픈을 통해 '아르떼뮤지엄'의 글로벌 무대 진출이 첫 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홍콩 퀴리베이 '아르떼 M'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공간에 설치된 일부 예술 작품

6세대 피크트램 운행 개시

홍콩의 명물인 피크트램이 재단장을 거쳐 더 넓은 공간과 더 커진 파노라마 창과 함께 8월 27일 다시 돌아왔다. 스위스에서 제작된 6세대 신규 트램은 가파른 1.4km 트랙을 따라 최대 210명의 승객을 거

뜯히 태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강삭철도 중 하나인 홍콩 피크트램은 해발 396m까지 올라가며 1888년에 처음 운행을 개시하였다.



2022 행정수반 시정 연설

The Chief Executive's 2022 Policy Address

홍콩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Charting a Brighter Tomorrow for Hong Kong

2022 행정수반 시정 연설
Policy Address

안전하고 충실한 '일국양제' 시행

-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 체계 개선
- '북부도회구' (北部都會區) 건설 등 전략 사업 추진을 통한 통합적 국가 발전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및 국가보안법 강화 시행
- 정부, 공공기관 및 위원회에 국가와 홍콩에 대한 애국심이 높은 우수 인재 유치
- 행정수반 주도하 행정부 및 입법부간 건설적 교류 촉진 및 앤티 챔버 (Ante Chamber) 회의 재정비

거버넌스 개선

- 국가 발전 통합 실무단 (Steering Group on Integration into National Development), 북부도회구 운영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on the Northern Metropolis) 출범 및 홍콩 투자법인 (Hong Kong Investment Corporation Limited) 설립 등 거버넌스 체계 제고
- 장기적이고 전략적 이슈 관련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수반 산하 정책 부서 신설
- 결과 지향적 접근 방식 도입 및 특정 태스크 대상 핵심성과지표 (KPI) 포함 110개 지표 설정
- 공무원 행동강령 (Civil Service Code) 개정을 통한 공무원 관리 강화, 상벌심각제 보완, 부서 이동 및 트레이닝 관련 기준 제고

기업 및 인재 유치 경쟁력 제고

- 전략적 기업의 홍콩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 조치 마련을 위한 재정시장 산하 전략적 기업 유치실 (Office for Attracting Strategic Enterprises: OASES) 신설 예정
- 인재 채용 및 원스톱 서포트 지원을 위한 정부시장 산하 인재 서비스 부서 (Talents Service Unit) 신설 예정
- 인재 및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7개의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판사처 및 해외 경제무역대표부 내 기업 및 인재 유치 전담 팀 (Dedicated Teams for Attracting Businesses and Talents) 설치
- 홍콩 내 사업체 설립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기금 조성
- 고연봉 인재 및 세계 상위 100위권 대학 졸업자들의 홍콩 유치를 위한 우수 인재취업 비자 (Top Talent Pass Scheme) 도입
- 적격 인재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홍콩 내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지불한 추가 인지세 환급 신청 가능
-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인재 양성 제도 개선

전통적 경쟁력 강화 첨단 신산업 개발

- 대규모 첨단 기술 기업의 메인보드 상장 촉진, 위안화로 표시된 투자 플랫폼 촉진, 상호 시장 접근 강화,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금융 개발 등을 통한 금융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
- 혁신 및 기술(I&T) 증진 및 연구 개발 (R&D) 성과 상업화 촉진
 - 향후 5년간 홍콩 내 우수 I&T 기업 최소 20개를 포함하여, 잠재력이 높은 I&T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 유치
 - 100억 달러 규모의 '연구, 학술 및 산업 부문 원-플러스 제도 (Research, Academic and Industry Sectors One-plus Scheme; RAISE+ Scheme)' 도입을 통한 대학 연구진 R&D 성과 상업화 지원
- 기존 기술 인재 체계 강화 및 I&T 인재를 위한 기술사 시설 신축
- 재 산업화 전략 조정 담당 산업처장 (Commissioner for Industry) 직급 신설
- 특마차우 지구 내 홍콩-심천 혁신 및 기술 단지 건설, 산탄 지역 내 테크노폴 개발 추진

예술, 문화 및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

- 예술, 문화 및 창조산업 개발 청사진 (Blueprint for Arts and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구상을 위한 문화처 (Culture Commission) 신설
- 영화, TV 및 스트리밍 플랫폼의 3가지 매체를 통한 홍콩 대중 문화의 세계화
- 메가 아트 및 문화 행사 기금 (Mega Arts and Cultural Events Fund) 조성을 통한 홍콩 내 국제 예술 및 문화 행사 개최 지원
- 유망 중소 예술 단체 및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고등 교육 기관 내 문화 예술 과정 수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제공
- 예술 및 문화 시설 추가 건설 및 확장을 위한 10개년 개발 청사진 구상
- 저작권 거래 및 예술, 문화 및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아시아 IP 거래 플랫폼 (Asia IP Exchange) 강화

수량, 속도, 효율 및 품질 개선

- 공공주택 라이트 (Light Public Housing, 아래 LPH) 도입 및 향후 5년간 3만호 신축
- 향후 5년간 LPH 및 전통 공공임대주택 (PRH) 총 158,000호 신축을 통한 임대주택의 50% 공급 확대 및 향후 5년간 임대료 보조주택 (Subsidised Rental Housing) 입주 대기 기간을 4.5년으로 단축 (2026~2027년 예상)
- 민간 개발자의 보조금 지원 주택 (Subsidised Sale Flats) 건설 참여 장려를 위한 파일럿 제도 도입
- 향후 5년간 민간 주택 개발용 토지 확보를 통한 예상 수요 충족 및 민간 주택 공급 안정화
- 토지의 산업 부지 전환 절차를 1/3 간소화함으로써 1/2까지 기존 소요 시간 단축, 토지 공급에 대한 통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토지 여유분 확보
- 의무적 매각 신청 기준을 60% 또는 70%로 하향 조정을 통해 오래된 지역의 도시 재생 촉진
- 일반 건축 계획의 신속한 승인을 위한 처리 전담부서 (Dedicated Processing Units)를 설립하여 1차 또는 2차 제출시 약 80% 승인
- 3대 도로 사업 및 3대 전략적 철도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 교통망 개선 및 개발



기업지원과 홍콩인들의 부담완화

- 내년 6월 말까지 컨벤션 및 전시 산업 보조금 제도 (Convention and Exhibition Industry Subsidy Scheme) 연장 및 향후 3년간 홍콩 내 200개 이상의 전시회 개최를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도 시행
- 사전 승인된 원금 지급 유예 제도 (Pre-approved Principal Payment Holiday Scheme) 6개월 연장, 비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인하 8개월 연장, 정부 건물 세입자 및 단기 임차인 대상 임대료 또는 수수료 할인 6개월 연장
- 브랜드 개발, 업그레이드 및 국내 영업 기금 (Dedicated Fund on Branding, Upgrading and Domestic Sales),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기금 (SME Export Marketing Fund) 아래 기업별 자금 지원 한도를 700만 달러 및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 대중교통 이용 요금 보조금 제도 (Public Transport Fare Subsidy Scheme) 특별 조치 6개월 연장
- 홍콩 로컬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 제도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Schemes)에 따른 무이자 대출 상환 1년 연장



역내 인재 양성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심화 코딩 교육 및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AI) 교육 등 I&T 관련 STEAM 교육 강화
- 향후 5년간 홍콩대학기금위원회 (UGC) 지원 대학 학생의 35%가 STEAM 교육 이수, 60%가 제14차 5개년 계획 경제 발전 방향에서의 8가지 분야에 부합하는 전공 이수
- 강력한 I&T 인재 풀 구축을 위한 약 1,600개의 UGC 지원 연구 석사 자리 추가



일차의로 활성화 노인 및 취약 계층 지원 강화

- 일차의로 청사진 (Primary Healthcare Blueprint) 제시, 예방 및 조기 치료 중점의 보건 의료 체계 개편, 일차의료 기관 (Primary Healthcare Authority) 설립
- 지역 보건 센터 (District Health Centres)에서 고혈압 또는 진성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추가 검진 및 치료를 민간 부문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 질환 공동 치료 파일럿 제도 (Chronic Disease Co-Care Pilot Scheme) 시행
- 배우자간 노인 건강 보험 바우처 (Elderly Health Care Voucher) 공유했을 경우 및 보장 범위 확장, 연간 바우처 금액을 조건에 따라 기존의 2천 달러에서 2천 500달러로 확대하여 일차의료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파일럿 제도 시행
- 2023~2024년 병원관리국 (Hospital Authority) 의료 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신규 사례 20% 감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도입
- 중의학 개발처장 직급 신설 및 연간 외래 환자 서비스 할당량을 8십만명에서 1/3 확대
- 사립 고등 교육 과정 및 학부 과정 대상 3,000개의 보조금 지원 추가, 응용 학위 과정 추가 도입 고려 등 직업 교육, 전문 교육 및 훈련 강화
- 연내 청년 개발 청사진 (Youth Development Blueprint) 초안 공개
- 5년 이후 청년을 위한 회원 셀프 추천 제도 (Member Self-recommendation Scheme for Youth) 참여 자문 위원회를 18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이 2곳의 구 위원회 내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자리 확보
- 다음 회계연도내 생애 첫주택 마련 제도 (Starter Homes)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여 청년층의 내집 마련 장려, 향후 5년 이내 청년 호스텔 제도 (Youth Hostel Scheme)에 따른 호스텔 3,000호 추가 제공을 위한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임대 보조금 지원
- 빈곤 위원회 (Commission on Poverty) 재구성 및 추가적 빈곤 완화 대상 파악
- 약 1만명의 간병인 대상 월 3천 달러로 수당 인상 및 수당 정규화 등 간병인 지원 강화
-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바우처 파일럿 제도 (Pilot Scheme on Community Care Service voucher for the Elderly)를 정규화하고 수혜자를 1만2천명으로 50% 확대, 2027년 말까지 요양원에 6천 2백개의 보조금 지원 자리 추가 마련 (20% 확대)
- 적절한 인원의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현지 근로자 고용을 우선하는 동시에, 요양원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특별 제도 마련
- 최저 임금 위원회 (Minimum Wage Commission)를 통한 법정 최저 임금 검토 메커니즘 강화 연구
- 내년 1분기 원안 및 남구에 지역 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 팀 (District Services and Community Care Teams) 설치



생활 및 레저 상향

- 홍콩섬에 약 60km에 달하는 '홍콩섬 일주 트레일 (Round-the-Island Trail)'을 조성하고 5년내 트레일 90%를 연결
- 도시 스포츠 증진, 약 30개의 다양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대상 10개년 개발 청사진 구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에 'M' 마크 제도 적용
- 향후 3년에 걸쳐 정부 부지 내 전기 자동차 충전기가 있는 7천개 주차 공간 추가 마련, 2024~2025년까지 정부 시설 에너지 성능을 6% 이상 개선
- 내년초 입법회에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규제 법안 제출, 연내 공공임대주택 (PRH) 대상 음식을 쓰레기 수거 시범 사업 시행

홍콩의 장점 부각

- 재정시장 산하 태스크포스를 통한 홍콩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담당 정부 부처 및 조직은 전통 및 첨단 산업업시장을 대상으로 홍콩이 제공하는 기회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000여명의 리더들이 본토 및 해외로부터 스폰서십을 통해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의 최신 동향을 배울 수 있는 방문자 프로그램 신설



SPOTLIGHT HONG KONG



돌아온 홍콩 럭비 세븐스

박진감 넘치는 액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축제 분위기 –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 세븐스(Hong Kong Sevens)가 코로나19로 인한 3년간의 공백을 깨고 2022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출전한 16개 팀이 홍콩 스타디움에서 3일 동안 우승을 놓고 45개 경기에서 격돌하였으며, 총 65,000여 명의 관중을 동원하였다. 호주 대표팀은 34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가 각각 플레이트(Plate) 챔피언십과 볼(Bowl) 챔피언십을 차지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 02-2183-3852 (서울 연락사무소) 이메일 : seoul_enquiry@hketoty.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gov.hk/korea